



인천시, 내달 7일 첫 차부터 인천 지하철·버스 요금인상

8년 만에 지하철 1400원서 150원 ↑
일반 버스도 1500원서 250원 ↑

인천 지하철·버스 요금이 8년 만에 인상됐는데 물가상승과 시설 노후화가 운송적자 원인이 됐다. 섬 주민 여객선 운임도 시내버스 인상 기준으로 반영됐다.

인천광역시시는 2023년 10월 7일 첫차부터 인천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각각 150원, 25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섬 주민들의 여객선 운임도 버스 요금과 동일하게 오른다고 19일 전했다.

이에 따르면 성인의 신용카드 사용 시 인천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에서 1400원으로, 간선형(파란색) 일반버스는 125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섬 주민 여객선 운임도 1500원으로 인상된다.

그동안 시는 공공요금 인상 관련 정부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고물가에 따른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시민 부담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을 준비해 왔다.

인천지하철 1·2호선과 함께 수도권 지하철 요금은 통합 환승 할인제 적용으로 신용카드(성인) 기

준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0월 7일 일제히 인상된다. 거리비례 추가 요금은 인상 없이 현행 유지된다.

일반 버스 요금은 신용카드(성인) 기준 간선형은 1250원에서 1500원, 지선형은 950원에서 1200원으로, 좌석버스 타 시도 행은 1300원에서 1550원, 영종행은 1650원에서 1900원으로 각각 250원 인상된다. 다만, 영종행 좌석버스 경우 영종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요금 체계를 이원화해 영종 시내 승·하차 시 150원 인하된 15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다.

인천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버스(직행 좌석) 요금은 2650원에서 3000원으로 350원, 광역급행버스(BRT)는 2200원에서 2600원으로 400원 인상된다.

또 인천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여객선 운임도 일반 1250원에서 1500원으로 청소년 870원에서 1050원, 어린이 500원에서 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섬 주민의 여객선 운임은 '인천

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인천 지하철·버스 요금은 2015년 6월 인상 이후 8년간 동결돼 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물가 상승, 인건비 증가 등에 따른 인천 대중교통 운송적자는 2022년 기준 지하철 1736억, 버스 2648억 원까지 증가해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부 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요금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은 시민 안전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최우선으로 사용하고, 다양한 수익사업 전개, 운송원가 절감 노력 등을 통해 대중교통 운송수지를 개선할 예정이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요금인상이 시민을 위한 교통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져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요금인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미순 기자



문경북 옹진군수, 브랜드쌀 성공기원 첫 벼베기 현장 시찰 [사진 제공=옹진군]

문경북 옹진군수 '브랜드쌀 성공기원' 현장시찰

첫 벼베기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옹진군은 문경북 군수가 지난 18일 북도면 신도리 일원에서 브랜드쌀 생산 농가 등 마을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옹진군 브랜드쌀 성공기원 첫 벼 베기를 실시하는 현장을 방문해 군민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전했다.

한편, 옹진군 브랜드쌀 생산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비축미곡 위주의 쌀 생산 여건을 개선하고 새로운 농가 소득을 창출하고자 북도면에서 "고시히카리" 품종을 약 50톤, 10ha 규모로 10개 농가에서 계약재배로 생산했다.

이날 수확한 품종은 "고시히카리"로 진한 품미와 강한 찰기를 가지고 있어 밥맛이 매우 뛰어난 특징이 있으며, 지난 5월 18일 첫 모내기를 하여 123일 만에 수확했다.

수확된 벼는 건조와 도정 과정을 거친 후 4kg, 10kg 단위로 포장하여 한가위 소비자의 밥상을 책임질 햅쌀로 변신하게 된다.

문경북 군수는 브랜드쌀 생산 농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브랜드쌀 생산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면서 문경북 군수는 "쌀 소비감소와 가격 하락의 여건 속에서도 옹진군 브랜드쌀 생산 재배에 힘써주시는 농업인의 땀과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농업인 편의 증진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올해 처음 수확하여 판매되는 우리 군 브랜드쌀 생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정착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최재운 기자

강화군, '야간조업구역 15ha 확장' 잔결음

내고장 소식 어장확장 성과는 '주문도 맨손어업·야간조업' 해결

강화군은 최종 군사협의를 통해 주문도(서도면) 갯벌에서 맨손어업 조업을 야간에도 가능토록 해 어업인들의 숙원을 해결하는 성과가 나왔다.

19일 강화군에 따르면 이번 야간조업 허용 구역은 주문도 육상과 인접한 소라가 많이 서식하는 3개 구역(15ha)을 신규로 설정하여 주문도 맨손어업 구역이 15ha가 확장됐다고 한다.

기존 구역(육상해서 2km 구역, 110ha)에서는 여전히 주간 조업만 가능하다고 알렸다. 주문도 맨손어업 야간조업 허용으로 소라, 말뚝, 가무락 등 어획량이 증가되어 연간 20억 원 이상의 소득증대가 예상된다. 그동안 강화도 해역은 접경지역으로 설정돼 있어 맨손어

업 신고 구역은 관할부대와 협의하게 돼 있고, 주간에만 조업하도록 허용되어 있었다. 이로인해 주문도는 야행성 품종인 소라가 많이 서식하고 있음에도 야간조업이 허용되지 않아 맨손어업을 주 생계 수단으로 하는 주문도 어업인들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주문도 어업인들과 경인북부수협은 관할부대에 지속적으로 야간조업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5월에도 주문도 맨손어업 어업인들은 정식으로 강화군을 거쳐 해병대 제2사단에 야간조업을 허용하도록 군사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가 안보상 및 경계 작전 지역 이유로 부동의 된 바 있다. 이번 야간조업 허용은 강화군과

경인북부수협, 해병대제2사단, 주문도 맨손어업 어업인 등이 10여 차례에 걸친 끈질긴 협의 끝에 이뤄낸 성과이다.

이와관련, 경인북부수협장은 주문도 맨손어업 어민을 대표해 "이번 주문도 맨손어업 야간조업 허용은 우리 어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큰 성과로 적극 협조해 준 강화군과 해병대제2사단의 결단에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강화군의 시책에 맞춰 어민들의 어업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3년 9월 1일 입법 예고된 해수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강화군이 그간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경청 등 관계 기관에 수년간 건의하고 40여 차례



유천호 강화군수 및 주문도와 강화군 섬과 서도면 전경 [강화군 홈페이지]

긴밀한 협의를 통해 60년 만에 조업 한계선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강화군 교동면 남쪽 교동어장 6km, 하점면 창후항 인근 해역의 창후어장 2.2km로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8.2km 정도가 확장되는 어업규제 완화의 대표적 주요성과다.

민선 8기 공약 사항에서 어업규제 숙원을 해결하겠다는 유천호 군

수의 약속이 결과물로 나왔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주문도 맨손어업 야간조업과 조업한계선 상향,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등으로 우리 어민들의 생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 완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미순 기자